

#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생존 몸부림

### 보좌진 개편·주민 간담회 개최 등 변화 모색 '돌아선 민심잡기' 지역 현안 해결도 적극적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쓴 맛을 본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정계개편이 이뤄진다면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결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우선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은 물론 단 한명의 시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한 광주 지역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진 상태다. 지방선거 참패 배경에는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심판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차기 총선에서 광주지역 지역구 의원들 가운데 당선을 확실할 수 있는 의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올

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의원들은 지방선거 직후 회동을 갖고 지방선거 결과와 지역구 활동이 미진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상호 공조를 통한 지역구 활동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광주 동구의 양형일 의원은 최근 보좌관 등을 지역구에 상주시키고 청년조직과 장년 조직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아깝게 낙마한 후보군들의 조직을 계속 유지,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북구 갑의 감기정 의원이 보좌진을 지역구에 내려보내는 한편, '노변정당'이라는 이름의 주민간담회를 매달 2~3차례 개최, 주민들

에 다가갈 계획이다.

또한 남구의 지방문 의원과 광산구의 김동철 의원도 보좌진 개편 등을 통해 정부 부문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늘리는 등 지역구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전남지역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지 기반이 상당히 붕괴했다는 점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일부 열린우리당 소속 후보들의 선전과 당선도 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후보들의 경쟁력에 기인한 점이 크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시간이 나는 대로 지역구로 머무는 등 지역 민심 따라잡기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 돌아선 민심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여수를 지역구로 한 주승용, 김성곤 의원은 여수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며, 순천 서갑원, 장흥·영암 유선호 의원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고 이는 지역 민심 이반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화갑(무안·신안) 대표를 비롯, 이낙연(함평·영광), 김효석(담양·장성·곡성), 최인기(나주·화순), 이정일(해남·진도) 의원 등은 지방선거 직후 총선준비 조직을 추스르는 한편 지역 민심 청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의 경우 정계개편 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 지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열린우리당 모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정계개편이 이뤄진다면 민을 것은 지역구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구 관리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반기문 외교 訪中 의미

# 북한 미사일 저지 외교적 해법 찾기

### 발사면 대북 영향력 시험대 중, 물밑 설득 불가피

반기문 외교총장 장관이 26일부터 1박2일간 중국을 방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해 중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줄 것을 당부키로 함에 따라 그 성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반 장관은 27일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과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과 만나 북한이 '악수(惡手)'를 두지 않도록 중국이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내부사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중국측으로부터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듣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 장관의 중국방문이 관심을 끄는 요인으로는 강경 대응 기류가 만연했던 미국에서도 미사일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점과 중국이 북한과 가장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점을 든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의 '선제 공격론'이 파문을 일으키자 마자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2일 "우리는 외교가 올바른 해법이라고 보며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즉시 진화에 나선 것은 이번 사태를 둘러싼 기류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이처럼 외교적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각국이 구상하고 있는 '외교적 해결 노력'이 종합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오는 29일 워싱턴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간 회담이 예정된 만큼 그에 앞선 한중 외교장관의 회담은 미사일 문제의 외교적 해결 기류에 큰 힘을 실어 줄 전망이다. 금융제재 등을 통한 미국의 대북 압박이 가속화하던 올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돌연 중국을 방문한데서 보듯 북한과 가장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중국이 반 장관 방문을 계기로 북한에 좀 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인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자신의 대북 영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뿐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발사를 막아야 할 입장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중국이 그간 신중한 입장을 보여 온 것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자국을 위협하는 핵탄두 운반수단으로 보고 강경 입장을 견지했던 미국과 일본의 장단에 맞출 수 없다는 판단과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고려 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표면적인 신중함과 달리 중국 역시 물밑에서 북한을 설득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합뉴스

## “北은 내정간섭 안경호 처벌하라”

### 박세직 향군회장 '작심한 듯' 대북공세

#### '6·25 제56주년 기념식'서

대표적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향군) 박세직(사진) 회장이 25일 마치 작심이라도 한 듯 북한에 대한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그의 대북공세는 정부 대표로 한명숙 총리까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잠종동 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56주년 기념식'에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박 회장은 우선 "750만 향군 회원 일동은 아직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저들의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서 지우지 않고 있는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며 포문을 연 뒤 "민족공멸을 자초하는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놀음을 중단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조기송환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권이 바뀌면 남한이 불바다가 된다고 협박하며 내정간섭을 하는 안경호를 처벌할 것"을 주장, 최근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북측 민간 대표단장으로 참석했던 안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안 서기국장은 지난 10일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개성공단 건설과 금강산 관광 등이 중단되고 '남녘땅은 물론 온 나라



가 미국이 불지른 전쟁의 화염속에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발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날 북한 '미사일 정국'에서 이뤄진 이날 박 회장의 발언은 유난히 강도가 높아 보였다. 박 회장의 공세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우리 정부 당국에도 건의한다며 "자주를 가장한 반미주의자, 민족을 위장한 친북주의자, 통일을 빙자한 위장 평화론자들에게 엄중한 경고와 강력한 제재를 건의한다"고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표현은 우리 정부 당국에 대한 '건의'였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 강한 불만의 표시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육사 12기로 수도경비사령관을 지내고 1982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국가안전기획부장(현 국정원장) 등 5, 6공 정권에서 요직을 거친 박 회장이 지난 4월 향군회장에 취임할 당시 향군의 보수적인 색채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일었다. /연합뉴스



노대통령, 한국전 참전용사 위로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제56주년 참전용사 위로연장으로 입장하면서 벨(왼쪽 첫번째) 주한미군사령관 등 참전용사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고청련' 내달 전국조직 출범

'고건 대통령후보 추대 전국청장연대(고청련) 창립준비위는 내달 창립총회를 갖고 전국조직을 출범 시키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수안보에서 전국 창립조직위원회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내달 22일로 예

정된 창립총회 때까지 16개 광역시도에 각각 1천여명 이상의 지방조직을 설치키로 했다고 김철근 상임대표가 전했다.

한편 고 전 총리의 측근인 강홍민 시립대학교수는 준비 위 워크숍에 참석, '내가 본 우민'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고 전 총리는 성실하고 청렴하며, 시스템적 사고와 추진력, 현장성,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나라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안재홍씨



한나라당 광주시당은 지난 2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안재홍(사진) 전 광주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광주시당대회에 위원장으로 단독 출마, 당 선됐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 중순

시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뒤 광주시당장과 북구청장 등 후보를 내는 등 어려운 여건 아래서 5·31 지방선거를 치러냈다.

시당은 이날 또 광주지역 대의원을 선출, 다음달 11일 서울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직접모집 미용그림 세종에서 유능한 매니저를 모십니다.**

미용그림 **지중** 1062)223-1088

**실내정원**

꽃다발 조각 511-8280

**7월 9일 공무원 남경철직 공인증개사**

**6월 26일 전남고시학원**

www.gnongosihw.com

**경제회센터**

1083)34-8513 011-509-7330